

#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 영국 MLA를 중심으로 -

## A Case Study on the MLA as an Example for the National-Level Cooperation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최 재 희(Jae-Hee Choi)\*

### 목 차

- |                    |                     |
|--------------------|---------------------|
| 1. 서론              | 4. MLA의 주요 활동       |
| 2. MLA 출범 배경과 아카이브 | 5. MLA와 아카이브의 역할 변화 |
| 3. MLA 조직과 운영의 특징  | 6. 맺음말              |

### <초 록>

본 연구는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대표적 협력기구인 영국 MLA의 조직적 특성과 활동을 분석했다. 특히, 문화유산기구의 활동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정부정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더불어 국가차원의 문화협력기구 설립이 아카이브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MLA 사례는 미미한 단계인 국내 문화유산기구 간 협력모색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협의회, 아카이브, 사회통합, 노동당정부, 문화유산기구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In particular, the study provides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with policy strategies for social inclusion. Futhermore, it discusses how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level cultural collaborative body impacts on an archival areas in depth. The case study of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reference for building a cooperativ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model in South Korea.

Keywords: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MLA), archives, social inclusion, Labour government,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 국가기록원 전문위원(hardie@mopas.go.kr)

■ 접수일자 2008년 11월 20일 ■ 수정일자 2008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22일

## 1. 서론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협의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이하 MLA)는 문화기관 간 협력 및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구로 2000년 설립되었다. MLA의 전신에 해당하는 기구로는 박물관·미술관위원회(Museums and Galleries Commission)와 도서관·정보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가 있다. 1931년에 설립된 박물관·미술관위원회는 영국정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사안을 자문하는 기구였다. 박물관·미술관위원회의 목표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진하고 해당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지역박물관 위원회별로 정부의 지원금을 분배하고 그 운용을 감독하며,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하고, 소장품 보존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도서관·정보위원회는 도서관 및 정보 영역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는 전문기구로 1995년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영국 도서관과 정보 관련 연구전략을 결정하고(연구 소위원회) 유럽과 세계에서 영국 도서관의 이해를 대변하는(국제 소위원회) 역할을 담당했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MLA 설립을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영국에서 문화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해당부문의 발전을 모색하는 정부차원의 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다. MLA가 전통적으로 문화부문을 대표하던 양대 영역인 박물관과 도서관의 협력 및 공조를 위한 최초의 조직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기록관리자의 입장에서는, MLA에 아카이브 영역이 참

여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제 아카이브는 기존의 박물관·도서관·미술관과 더불어 주요한 문화영역으로 인정되었다. MLA 참여를 통해 아카이브와 다른 문화영역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MLA 설립 이전 정부는 문화정책의 중심영역으로 도서관과 박물관만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아키비스트협회(Society of Archivists)와 관련 교육기관 등의 열정적 캠페인 이후, 정부는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MLA에 아카이브 영역을 포함시켰다(Cook 2006, p.144). 아카이브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영역을 포괄하는 최초의 조직인 MLA의 등장은 당연히 각 영역은 물론 문화부문 전체의 발전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결성된 최초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인 MLA의 실험은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국내 문화영역 간 협력모색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예상된다.

본고는 먼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정책과 이에 따른 문화부문의 역할 변화와 연계하여 MLA의 설립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MLA 참여를 계기로 아카이브 영역의 역할과 기능에 어떠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MLA의 조직구성과 운영의 특성을 소개할 것이다. 이는 MLA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MLA와 유사한 조직이 설립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러한 조직을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할 것이다. 4장

은 MLA의 주요 활동을 다룬다. MLA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각 영역별 활동과 전체(cross-domain)를 아우르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MLA 정책방향과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5장은 MLA에의 참여가 아카이브의 정책과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망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정부의 변화된 사회문화정책과의 조응을 중심으로 아카이브의 활동을 소개할 것이다.

## 2. MLA 설립배경과 아카이브

세계 정치사에서 영국 보수당은 20세기 유럽의 보수정당 중 가장 성공한 정당으로 꼽힌다. 특히 1979년부터 1997년까지의 18년간은 보수당의 역사에서도 가장 화려한 최고의 전성기였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영국병을 몰아내고 쇠락한 제국의 위엄을 되살린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인물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늘 그러하듯이, 보수당의 '신자유주의'가 남긴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1997년 5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영국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 진단을 실시했다. 이는 수상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행조사의 일환이었다.

영국사회에 대한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999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25.6%가 빈곤층에 속하였고 빈곤층으로 하락할 위험에 처한 저소득 계층도 10.3%에 달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백인보다 유색인

이 빈곤에 더 노출되어 있었다. 영국의 아동 5명 중 1명은 실업수당을 받거나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수입에 따른 복지혜택(means-tested benefit)의 대상이 되는 가구에 속해 있었다. 빈곤이 집중된 100여개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은 무려 60%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빈민의 수가 감소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16%에 그친 반면,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22%,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응답자의 54%가 향후 10년간 빈곤이 증가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18%만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빈곤의 원인으로는 21%가 게으름이나 의지부족과 같은 개인적 이유를 꼽았고, 28%는 불공정한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답했다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0).

경제적 문제에 덧붙여 사회에 대한 믿음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 및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도는 1990년의 44%에서 1995년에 30%로 급감한 상태였다. 특히, 의회와 교회, 경찰,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 한 가지 위안은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 더 많은 신뢰와 관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건강한 사회유지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러나 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고소득,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에 집중되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실직자, 기초교육과정만 이수한 사람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진단이었다(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2000).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지역주민과 특정 민족, 계층의 경우, 미래에 대한 전망조차 지극히 암울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 현실을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라고 규정했다. 1999년에 정부는 "실업, 기술 부족,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범죄율, 건강악화, 가정 붕괴와 같은 복합적 문제로 사람이나 지역이 고통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사회적 소외'라고 정의했다. 2001년에 들어와 사회적 소외에 대한 정부의 정의는 확대된다. "사회적 소외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저소득, 가정 내 갈등, 학교문제, 전과 경험, 소수민족 출신, 빈곤지역 거주, 정신적 문제, 노령, 장애 등이 포함된다."(MLA 2004:A, p.5) 이러한 사회적 소외는 사회정의에 배치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미치면서 국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회진단 결과를 토대로 노동당정부는 사회통합과 '살기 좋은(liveable)' 지속 가능한 견고한 공동체(sustainable community)를 목표로 한 새로운 사회정책을 추구했다. 새로운 공동체는 비전과 소속감이 있는 공동체, 상이한 배경과 환경의 사람들 간에 서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공동체,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공동체, 일터·학교·이웃 간에 견고하면서 긍정적인 관계가 발전되는 공동체를 뜻했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도 정비되거나 제정되었다. 1999년 11월 내각부(Cabinet

Office)는 영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인종·성·장애 차별을 극복할 수 방안 개발을 요구하는 평등성명(Equality Statement)을 발표했다. 같은 해 장애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장애인의 공공건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견고한 공동체는 교육 확대·빈곤 퇴치·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부문에서의 처방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촉매이자 동력으로서 고도의 공공적 의미를 가지는 문화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제 문화는 정부의 핵심시책인 사회적 소외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문화부문에 정부의 관심 및 예산지원이 크게 증대했다. 1999년 문화미디어 체육부는 부서의 공공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국민의 문화 레저활동 참여 증진과 이에 장애가 되는 요인 제거, 그리고 문화활동 참여가 저조한 계층의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Access Policy*)을 발표했다(MLA 2004:B, p.12). 이러한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협의회의 설립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카이브 영역이 MLA에 포함된 것은 아카이브 및 기록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즉, 기록은 출생·결혼·사망 등 개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정체성과 자아 확인에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기록은 조직·집단·공동체의 일상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속성을 가지므로, 기록 생산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정체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역사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를 위한 촉매로

역할 할 수 있다. 풍부한 기록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 문화들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와 시민권 확립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아카이브는 개인 및 공동체의 정체성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증진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변화된 인식이었다(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1).

아카이브 영역이 대표적 문화유산기구들의 발전과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기구인 MLA에 참여하면서 영국의 아카이브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증대되고 아카이브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동시에 아카이브와 관련된 정책은 도서관·박물관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아카이브 영역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이행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즉, 박물관 및 도서관과 함께 아카이브는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전통적 역할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 3. MLA 조직과 운영의 특징

MLA는 조직 성격상 비정부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에 속한다. 비정부공공기관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지만 정부부서에 정식 포함되지 않고 일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

장받고 공공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과거 비정부특수법인(quasi-autonomous non-ministerial governmental organisation: Quango)으로 불리기도 했던 비정부공공기관은 방만한 정부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1992년 당시 정부예산의 25%가 할당될 정도로 비정부공공기관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비정부공공기관은 정부부서의 실질적인 비대화와 비효율,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정부공공기관의 경영진은 정부에서 임의로 임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1995년 별도의 공직임용위원회(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를 구성하고 임용 기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공공기관은 서비스행정으로의 전환, 경쟁과 견제를 통한 공공조직의 효율성 제고, 행정만능주의와 관료 경직성 타파, 개방행정, 민간참여를 통한 전문성 제고, 주요 정책에 대한 민관소통 등의 장점을 가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MLA의 감독 부서는 문화미디어체육부(DCMS)이다. MLA 운영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문화미디어체육부에 매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2년 단위로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을 할당받는다. MLA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원도 받지만 정부출연기금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예산구조는 독립성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정부가 출연한 예산은 123.8백만 파운드<sup>1)</sup>에서 2004-08년 동안 182.8백만

파운드로 증액되었다(2007회계연도의 총수입은 52.7백만 파운드였고 총지출은 51.3백만 파운드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예산의 상당부분이 감소될 예정이다. 문화미디어체육부와와의 합의로 결정되는 이러한 예산배정 구조는 당연히 MLA의 조직구조와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출범 초기부터 최근까지 이사장으로 MLA를 이끌었던 우드(M. Wood)는 언론인 출신으로 1999-2000년 도서관·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의 사임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했던 인사들도 대부분 퇴진했다. 현재 MLA 이사회는 예술위원회이자 계관사인인 이사장 모션(A. Motion) 교수를 비롯하여 언론인, 아키비스트, 사서, 학자, 전직관료 등 12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진의 대폭 교체는 위에 언급한 예산삭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당시 이사회의 구성분포는 현재와 비슷했지만 위원 수는 16명이었다.

예산삭감과 함께 실무부서의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2006년 도서관 정보사회, 인력개발 및 표준 등 7개부서 90명에 달하던 직원이 현재 정책, 프로그램 이행, 법인서비스 등 5개부서 72명으로 감축되었으며 2008/09년 동안 상당수 직원을 추가 감축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런던사무실을 축소해 일부 정책기능만 남겨두고 대부분 조직을 버밍엄의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고 있다. 런던 사무실의 임대료는 제곱피트 당 72.50파운드였던 반면 버밍엄 사무실의 임대비용은 제곱피트 당 16파운드로 약 78%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버밍엄

사무실은 향후 MLA 업무의 2/3 정도를 담당할 예정이다.

MLA의 지역 협력기관인 9개 권역별(런던, 잉글랜드 동부,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동부 미들랜드, 서부 미들랜드, 요크셔) 지역MLA의 역할도 상당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지역MLA는 더 작은 규모로 조직을 축소하면서 지역별 특정사안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정비할 것을 예고한 상태이다.

MLA의 조직운영상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자산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다. 그러나 독립성과 전문성에 수반하는 위험성도 내재할 것이다. 현재 MLA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소로 독자적 운영의 토대가 되는 예산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이다. 이는 MLA뿐만 아니라 정부소속 위원회 형식으로 결성된 국내의 각종 문화 관련 위원회도 동일하게 부딪치는 딜레마일 것이다. MAL와 우리가 다른 점은 시계의 추(pendulum)가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지만.

#### 4. MLA의 주요 활동

2003년 현재 영국에는 2,500여개의 박물관과 36,991개의 도서관, 그리고 2,179개의 아카이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아카이브 설립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잉글랜드 지역에 1880개, 스코틀랜드에 210개, 웨일스에 67개, 북아일랜드에 22개의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있다. 연간 이용자 수는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분야

1) 2008년 12월 10일 현재 1파운드는 약 2100원이다.

전체에서 6억2천5백만 여명에 달한다. 3개영역에 모두 68,923명의 정규직원이 고용되어 있다. 이 중 아카이브의 경우, 영국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국립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의 588명을 포함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소재 아카이브에 1,248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박물관에만 25,20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MLA의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이 있다. MLA는 이들 분야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MLA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정기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해왔다. 여기에는 방문객 데이터 수집과 아동·학습·공동체에 대한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영향력 조사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방문객이 전년도에 비해 1천7백만 명 증가하였고, 성인의 43%가 최소 연1회 이상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람하며, 관람객의 80%가 박물관·미술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를 통해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이 국가 및 지역생활에서 중심적 위상을 가지고 있

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각종 통계는 새로운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9개 권역별 지역 네트워크의 결성을 통해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이해가 단일한 목소리로 대변되도록 한 것도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자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로부터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별 MLA에 분배하는 일이 MLA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MLA는 또한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개발을 주도한다. 해당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정책을 파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의 이용자 확대나 사회통합 아젠다를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MLA의 역할이다.

일례로, MLA는 이용자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2005년에 2차대전 참전용사 공헌 추모를 위한 전국순회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관련 소장품이 모두 참여하였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쇼핑센터와 같은 대중적인 전시장소를 선택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컬렉션을 구성해 190만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표 1> 영국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일반현황

	기관 수	이용자(명)	여성이용자 비율	최다이용 연령층
박물관	2,500	74,600,000	49%	35-44세
도서관	36,991	549,598,669	59%	35-44, 65-74세
아카이브	2,179	987,334	45%	55-64세
계	41,670	625,186,003		

※ 출처: MLA, 2004. *Overview of Data in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Sector*에서 인용.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와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를 연결하는 문화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해,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2003년 영국중앙도서관(British Library)의 정규직원 2,256명 중 소수민족 출신은 577명이었고 장애를 가진 직원의 수는 57명에 불과했다. 아카이브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의 출신민족별 구성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소수민족 출신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소 지난 8년간 소수민족 출신이 UCL대학 아카이브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사례가 없었다. 장애를 가진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점하는 아카이브는 4%에 불과했다. 전체 아카이브 중 71%는 장애를 가진 직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였다(MAL 2004:B, p.96). MLA는 노동력 개발과 다양화를 위해 소수민족이나 사회적 약자가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에서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Barriers to Entering Careers in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2005*) 조사 발표하였으며, 흑인과 아시아계 큐레이터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및 다양성 확대는 MLA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가 사회통합 및 배움을 자극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전에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는 문화를 향유하고 경험하는 수동적 장소였다. 그러나 MLA는 경험을 교육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려

한다. 즉,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learning)은 믿음과 확인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이를 경험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MLA의 교육정책(*Inspiring Learning for All*)은 문화경험이 교육효과를 고양하고 자극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다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MLA는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교육·훈련은 MLA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교육·훈련은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MLA는 도서관의 선임사서를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429명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 독서지도를 위한 사서 훈련 프로그램(*Their Reading Futures*)을 지원하여 현재 104개의 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MLA는 60여명의 아키비스트와 박물관의 큐레이터에게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MLA는 박물관, 도서, 필사본 등 16개 분야의 소장품 관리와 관련된 500여개 이상의 실무가이드, 전문가 조언, 훈련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컬렉션 트러스트(Collections Trust)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MLA는 자체적으로 연구보고서와 각종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의 수준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박물관 인증체계(*Museum Accreditation Scheme*)를 도입하여 169개 박물관이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인증체계(*Designation Scheme*)를 확대해, 100여개의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이브가 국가적 또는 국제적 중요성을 가진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표준을 개발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상호심사체계를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149개에 달하는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도서관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다.

최근 MLA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관련된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올림픽아드라는 이름의 문화프로젝트에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행사와 문화를 접목시키고 런던 이외 지역으로 올림픽의 열기를 확산하며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가 새로운 고객과 접하고 올림픽 참가자와 관광객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 MLA의 인식이다. 프로젝트의 하나인 「국민의 기록 (People's Record)」은 올림픽 개최과정 및 올림픽이 영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로 올림픽 개최도시의 경험을 영구보존할 계획이다. 「문학과 스토리텔링(Literature and Story Telling)」은 저명한 시인의 강의, 공연행사, 문학 워크숍 등 관련 축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이미 100 여개 이상의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가 올림픽 인수(8.24) 및 문화올림픽아드 시작(9.26-28)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 5. MLA와 아카이브의 역할 변화

MLA에의 참여는 아카이브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아카이브

브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아카이브 및 종사자, 이용자는 물론 비이용자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었다. MLA는 2001년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카이브가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응답자의 82.4%가 아카이브는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대답을 했다. 65.9%는 아카이브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72.4%는 가족과 공동체의 정체성 강화에, 그리고 20.3%는 업무와 행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아카이브의 서비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세부 서비스별 만족도는 <표 2>와 같다.

전통적으로 아카이브를 이용하지 않는 계층은 청소년을 포함한 학생층, 노동자, 저소득계층, 소수민족, 검색기술이 취약한 사람들, 컴퓨터 경험 없는 사람들, 사회 약자계층, 농촌주민 등이었다.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카이브와의 관련성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카이브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아카이브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통계를 넘어 아카이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유관분야에 대한 조사 분석도 진행되었다. 2003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에는 182개의 가족사 관련 단체가 존재한다. 최대 규모인 가족사협회연합(Federation of Family History Societies)에 소속된 회원 수는 350,000명에 달했다. 1,033개의 지역사 연구단체에 40여만 명의 시민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姓연구학회(Guild of One-Name Studies)에도 1,700명이 회원으

〈표 2〉 아카이브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구분	전반적 만족도	우수	양호	보통	불만족	불량
Advance Information	89.1%	46.0%	43.1%	9.6%	1.1%	0.2%
웹 사이트	80.4%	30.7%	49.7%	15.0%	3.7%	0.8%
개관 시간	83.3%	38.8%	44.5%	14.1%	2.4%	0.2%
건물への 접근성	87.2%	46.1%	41.1%	10.7%	1.8%	0.4%
이용자 시설	77.8%	36.6%	41.2%	17.7%	3.9%	0.6%
목록, 색인, 안내서 등	89.5%	45.5%	44.0%	9.5%	0.9%	0.0%
문서 열람	91.0%	50.2%	40.8%	7.7%	1.1%	0.3%
마이크로필름 이용시설	83.3%	44.1%	39.2%	13.7%	2.5%	0.5%
복사서비스	74.8%	33.6%	41.2%	18.8%	5.1%	1.2%
IT 장비	74.0%	30.6%	43.4%	18.7%	5.3%	2.0%
직원 자질 및 배치 적절성	93.9%	63.1%	30.8%	5.4%	0.6%	0.0%
직원 친절도	96.6%	72.7%	23.6%	3.0%	0.5%	0.2%

※ 출처: MLA, 2004. *Overview of Data in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Sector*에서 인용.

〈표 3〉 아카이브 비이용자 설문결과

나와 아무런 연관성을 느끼지 못한다.	16%
아카이브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	14%
아카이브에 관심이 없다.	13%
아카이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는지 모른다.	5%
아카이브는 역사연구자를 위한 장소이다.	3%
아카이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모른다.	3%
아카이브가 어떤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2%
아카이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2%
아카이브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위한 장소이다.	1%
이용이 필요한 시점에 문을 닫는다.	1%
특정한 이유 없다.	33%

※ 출처: MLA, 2004. *Overview of Data in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Sector*에서 인용.

로 등록되어 있었다.

역사 관련 정기간행물은 132종이며 구독자는 2.1백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매년 5,000여종의 역사 관련 도서가 발간되며, 이는 전체 발간 도서 중 4.5~5.0%의 비율을 점했다. 공중파방송에서 역사프로그램이 방송된 횟수는 1998년의 375회에서 2002년에 559회로 증가했다. 최고시청률을 기록한 BBC의 「피라미드」를 약 9백만 명이 시청하는 등 역사물 시청자 수는 평

균 2백만 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 TV 「히스토리채널」의 경우, 방송시간대별 시청자 수와 시청자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3개 대학에서 4,017개의 역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역사학 교수는 119개 대학에 2,921명이며 전공학생 수는 2001/02학기 기준으로 111,485명에 달했다. 이러한 통계조사는 아카이브의 현황진단과 발전방향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표 4〉 역사 관련 도서 발간 현황

연도	출판물 수	전체 대비 비율
2001	5,517	4.6%
2000	5,771	5.0%
1999	5,193	4.7%
1998	4,546	4.3%
1997	4,168	4.2%

〈표 5〉 역사 관련 방송 횟수

연도	방송 건수
2002	559
2001	582
2000	662
1999	529
1998	375

※ 출처: Archives Task Force, 2003. *Listening to the Past, Speaking to the Future*에서 인용.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동당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 통합이라는 아젠다 이행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맞물려 아카이브의 준립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었다.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비해 아카이브 영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문화기구이다. 연간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박물관·미술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더욱이 전체 아카이브 이용자 중 24세 이하는 5% 미만, 유색인은 2% 미만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MLA 출범 초기, 아카이브 중 74%는 사회통합정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17%는 그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아카이브는 비이용자 분석 등 새로운 고객 창출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아카이브는 이용자 확대와 사회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박물관·도서관·대학 및 연구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추진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TNA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0년 런던대학과 협력으로 시작된 협력프로젝트인 'CASBAH(Caribbean Studies and Black and Asian History)' 카리브 연구 및 영국 내 흑인과 아시아인 역사와 관련된 자료와 웹, 데이터베이스, 연구보고서의 원본 검색을 가능하게 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Black Presence'라는 이름의 웹은 영국과 세계 각지의 흑인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온라인 전시하고 있다.

TNA가 주도한 또 다른 참여 프로젝트(*Moving Here*)는 지난 200년 동안 영국으로 이주한 4개 그룹(동유럽 출신 유대인, 아일랜드 출신, 카리브, 남부아시아 출신)의 이민사와 관련된 총 20만 여점의 디지털 이미지문서, 시청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는 영국중앙도서관, 전쟁기념관(Imperial War Museum), 지역역사연구회, 왕립지리학회 등 28개 도서관·박물관·아카이브가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소수민족 집단이 직접 이민사를 기록하고 도큐멘테이션에 참여해 이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다. 2007년 TNA는 런던경제대학(LSE) 및 관련 연구단체와 공조해 동성애 역사와 관련된 기록 연구가이드 발간하고 핵심 문서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동성애·양성에·트랜스젠더 역사 연구포털(*Out there*)을 개설했다.

지방 아카이브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버밍엄 아카이브와 지역 대학이 공조한 흑인·이슬람·유대인 및 기타 이민자의 역사와 이들의 지역 기여를 보여주는 전시 열람 프로젝트는 수범사례로 꼽힌다. 요크셔 아카이브는 아카

이브·도서관·미술관·박물관을 통합하는 신축건물을 개관했다. 그 결과 2007년 TNA의 지방자치단체 아카이브 현황진단에서 최고점수를 받기도 했다(TNA 2008). '문화의 보고(Treasure House)'로 명명된 이 건물은 문화기관 간의 협력을 상징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 아카이브 영역에서 박물관 및 도서관과의 협력 또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 6. 결론

국내 현실을 비추어볼 때 영국의 MLA와 같은 국가차원의 문화유산 협력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먼저 각 영역별 정책자문위원회를 살펴보자.

도서관 분야에는 2007년 6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관련 정책기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해 주요정책 결정과 실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고 도서관 정책의 신속한 결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이를 위해 이전의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였던 도서관발전위원회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대체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승격되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운영체계·운영평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8년 8월7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

에는 향후 5년간 300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등 3대 정책목표와 8개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도서관법 제24조는 관할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가 있다.

박물관 분야에는 정부차원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수립과 시행의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는 문화재보호법(제4조)에 따른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에 박물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등을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카이브 분야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에서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와 같은 대표적 문화영역의 협력과 정책수립, 발전, 그리고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을 주도할 협력기구의 출범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MLA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적 성격을 가진 조직의 등장은 더욱 난망할 것이다. 현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26명 중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포함되어 있다. 여타 분야의 위원회 구성도 대동소이하다. 조직적 통합이나 새로운 조직 설립보다 문화 분야간 교류와 공감대형성, 낮은 차원의 협력모색 등이 현실적일 것이다.

박물관 및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도 하나의 모색방안이 될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광역교육청과 시군구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은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지역의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통합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부문의 현황에 대한 공동조사와 이용자/비이용자 분석 등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추진할 공동실무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박물관 및 도서관과의 협력은 아카이브 분야에 많은 자극과 더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카이브는 조선시대 사고처럼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생하여야 한다. 그 속에서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물론 그 전제로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영국에서의 사회통합과 같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 아카이브는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구별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카이브는 국가와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을 위한 보고이다. 아카이브의 가치와 중요성은 문화유산의 한계변수를 훨씬 능가한다. 아카이브는 도서관과 박물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며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아카이브는 기록관리를 통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위한 지식정보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TNA와 공공정보관리청(Office of Public Sectors Information)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보관리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것이 TNA의 비전으로 채택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유관 문화기관과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아카이브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카이브가 다른 문화영역 및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카이브의 위상 제고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역할 모색과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영국에서 MLA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흐름은 우리 아카이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시사점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제공한다.

## 참 고 문 헌

- Archives Task Force. 2003. *Listening to the Past, Speaking to the Future*.
- Cook, M. 2006. "Advancing into the Unknown: New Issues in ARM Education in the UK," *the 2nd Asia-Pacific Conference for Archival Educators and Trainers* 발표문: 144-149.
- MLA, 2004: A. *New Directions in Social Policy: Communities and Inclusion Policy for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 \_\_\_\_\_, 2004: B. *Overview of Data in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Sector*.
- \_\_\_\_\_, 2004: C. *Users & Non-Users of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 \_\_\_\_\_, 2004: D. *Listening to the Past, Speaking to the Future*.
- \_\_\_\_\_, 2006. *Review 2004-2006*.
- \_\_\_\_\_, 2006. *Business Plan 2006/07*.
- \_\_\_\_\_, 2007. *Combined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07*.
- National Council of Archives. 2001. *Taking Part: An Audit of social inclusion work in archives*.
-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2000. *Research Quarterly*.
-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0.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 The National Archives. 2008. *Record Keeping* (June).
- 〈참고사이트〉
- MLA 홈페이지.  
〈<http://www.mla.gov.uk>〉.
- NCA 홈페이지.  
〈<http://www.ncaonline.org.uk>〉.
- TNA 홈페이지.  
〈<http://www.nationalarchives.gov.uk>〉.
- CASBAH 홈페이지.  
〈<http://www.casbah.ac.uk>〉.
- Moving Here 홈페이지.  
〈<http://www.movinghere.org.uk>〉.